

<p>When I first started teaching CR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now SRI) in State primary schools in 1988 it was not uncommon to find that up to ½ the children in each class knew something of Jesus or the Bible. However, the situation now is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perhaps even all except 2 or 3) know absolutely nothing of Jesus or the Bible. A poll in Britain a couple of years ago to ascertain the reader's attitude to Easter found that over half had no idea at all about the reason for Easter celebrations and what happened on the first Easter Day.</p>	<p>제가 1988 년 처음으로 공립 초등학교에서 CRE (기독교 종교 교육, 현 SRI)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매 학급의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 알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엄청난 다수가 (아마 두 세 명을 제외한 거의 모두) 예수님, 또는 성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 부활절에 대한 독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절 기념에 대한 이유와 첫 부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p>
<p>Remember how, in the book of Exodus, we are told that “a new king, who did not know about Joseph, came to power in Egypt” (Exodus 1: 8). That is what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down throughout the history of God's people. That's how it was in Babylon in the days of Belshazzar – the king who appears and disappears in the space of one chapter. You will notice from the words of Belshazzar in vv. 13-14 when Daniel is brought before him, that Belshazzar didn't really know who Daniel was. It would appear that they had never met before. In Nebuchadnezzar's day, Daniel was very well-known but a lot of water has passed under the bridge since then. A lot has happened between the end of chapter 4 and the beginning of chapter 5. Daniel was universally respected. He was chief advisor to the king, and of enormous influence in the land, in the kingdom. But now, as we come to chapter 5, he has been pensioned off, put on the shelf as it were. The only person who seems to know anything about him is the queen mother. Just as Belshazzar has to be reintroduced to Daniel in this chapter, so people in our society today need to be reintroduced to Christianity and the message of the gospel. Christianity has lost its place of influence in society. What we have to say so very often today, is strange to the ear of postmodern people. As far as the average person in our society is concerned, Christianity has passed its use-by date. It is not relevant in this world of the 21st century. We are living in a post-Christian era, we are told. And so chapter 5 is extraordinarily relevant for the kind of society we are living in today.</p>	<p>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 1:8)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한 장의 기간 동안 등장하고 사라지는 벨사살의 시대에 바벨론이 어떠한지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앞에 불려졌을 때, 여러분은 13~14 장의 벨사살의 말에서 그는 다니엘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다니엘은 매우 유명하였으나,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 장의 마지막과 5 장의 시작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나 존경 받았습니 다. 그는 왕의 수석 고문이었으며 그 나라와 왕국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석참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 장에서와 같이, 그는 퇴직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 다.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듯한 오직 한 사람은 왕대비뿐입니다. 이 장에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다시 소개되어야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와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포스트모던시대의 사람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21 세기의 세상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듣습니 다. 때문에 5 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사회와 매우 관련 깊습니 다.</p>
<p>I want to look at this chapter this morning under 3 headings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Wilful Wickedness of Belshazzar, (2) In Complete Contrast, the Winsome Witness of Daniel, (3) As the Climax to this Story, the Writing on the Wall. 	<p>저는 오늘 아침 3 가지의 주제로 이 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벨사살의 고의적 죄악 2) 완전히 대조적인, 다니엘의 흡족한 증명 3) 이 이야기의 절정인, 벽에 쓰여진 글자
<p>1. <u>The Wilful wickedness of Belshazzar</u></p>	<p><u>1. 벨사살의 고의적 죄악</u></p>

<p>Let me introduce you to this man, Belshazzar. He was unknown historically until fairly recently when his name was found engraved on a stone somewhere by some archaeologists. Now we know quite a lot about him. After Nebuchadnezzar's death the power of Babylon declined very rapidly. The throne changed hands several times in rapid succession until eventually Nabonidus took power. Nabonidus was a rather eccentric type of character who went off into the desert pursuing his own interests and left Babylon in charge of his son, Belshazzar, who was prince regent. That note of authority comes out clearly here in chapter 5 because, when Belshazzar offers his wise men rewards for interpreting the writing on the wall (v. 7), he offers to make the successful wise man "the third highest ruler in the kingdom". Obviously he couldn't have offered second highest place because he was only prince regent, not king. Although Nebuchadnezzar is described as Belshazzar's "father", the Aramaic term used can also mean "grandfather", "ancestor" or even "predecessor".</p>	<p>여러분께 벨사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꽤 최근까지, 일부 고고학자들에 의해 어딘가의 비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이 발견될 때까지,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의 죽음 이후, 바벨론의 권력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왕위는 결국 나보니도스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나보니도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사막으로 떠나 바벨론을 그의 아들, 섭정왕자였던 벨사살에게 맡겨두었던 다소 괴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한 기록이 여기 5장에서 명백히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벨사살이 그의 지혜자들에게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시할 때 (7 절), 그는 성공한 지혜자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단지 섭정왕자였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높은 자리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으나, 이는 아람어로 "할아버지", "조상" 또는 "전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p>
<p>What kind of man was Belshazzar? You only have to compare the opening and closing verses of the chapter to answer that question. The final two verses of the chapter tell us that Darius the Mede (or Cyrus, the Persian, as he is referred to elsewhere in the Old Testament) is on the doorstep. And what does Belshazzar do about it? Does he declare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Does he summon his troops? Does he call a counsel of war? What does he do? He throws a party! Look at verse 1: "King Belshazzar gave a great banquet for a thousand of his nobles and drank wine with them". It was a huge party. Imagine how much it must have cost! His empire is being invaded and he throws an extravagant party. Why?</p> <p>It seems sheer madness. Is it just bravado – "Who's afraid of Darius?" Is that what he is doing? Is he trying to bolster up his own courage and impress his nobles? "Eat, drink and be merry for tomorrow we die." In a scandalous breach of protocol, Belshazzar invites his royal harem to the party, too – his concubines as well as his wives. It was a drunken orgy – reckless and selfish indulgence designed to take his peoples' minds off the imminent political emergency. While his kingdom was being invaded, Belshazzar was drinking himself under the table. But it goes further than that. In verses 2-4 we are told that while Belshazzar was drinking his wine, he gave orders to bring in the gold and silver goblets that Nebuchadnezzar, his ancestor, had taken from the</p>	<p>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지 이 장의 시작과 끝 절을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두 개의 절은 메데 사람 다리오 (또는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바사 사람 고레스라 간주되는)가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병력을 소환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1 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것은 엄청난 파티였습니다.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어야 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그의 왕국은 침략당하고 있었고 그는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p> <p>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인듯합니다. 단지 허세일까요? - "누가 다리오 따위를 두려워하겠어?" 이것이 그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의례의 파괴로서, 벨사살은 자신의 아내들과 첩들뿐만 아니라 귀족의 첩들 또한 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이것은 흥청망청 마시고 떠드는 소동이었습니다. 임박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신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방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피침되고 있을 때, 벨사살은 만취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더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2~4 절에서 벨사살이 와인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는 그의 선조인</p>

<p>temple in Jerusalem so that the king and his nobles, his wives and concubines might drink from them. And that indeed is what they did. And, as they drank, we are told that “they praised the gods of gold and silver, of bronze, iron, wood and stone” (v. 4). There are religious overtones to this party. Some commentators suggest that, in fact, this was a religious feast to propitiate, to appease, the ancient pagan gods which Nebuchadnezzar had turned his back on. It was a calculated act of sacrilege on Belshazzar’s part. It is a desperate last ditch attempt to invoke the powers of the pagan gods in defiance of the God of the Jews whom Nebuchadnezzar had made so much of – indeed had come to acknowledge as the true God and his King. This is a deliberate provocation of the God of heaven. Surely there is no way that Belshazzar is going to get away with it?</p>	<p>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성전에서 취하여온 금과 은 술잔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고, 왕과 귀족들,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들은 그 금과 은과 동과 쇠, 나무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4 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티에는 종교적인 함축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사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돌렸던 고대의 이교도신들을 달래고 누그러뜨리기 위한 종교적인 잔치였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벨사살에 있어 계산된 신성모독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왕이며 참된 하나님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서 이교도신들의 힘을 기원하는 필사적인 최후의 시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설마 벨사살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도 없었을까요?</p>
<p>2. The Winsome Witness of Daniel It is ironic, isn’t it, that the only person who has got anything to say in this crisis situation is Daniel? The enchanters, the astrologers, the diviners, the wise men, the so-called experts, are all silent. They have got nothing to say. It is very uncharacteristic, isn’t it? Such people are not usually lost for words. And the king gave them plenty of inducements to speak – real rewards of promised wealth and power – but not one of them could read the writing on the wall or tell the king what it meant.</p> <p>So King Belshazzar became even more terrified and his face grew more pale and his nobles more baffled. The only one who has anything to say in this situation is Daniel. He had gone into obscurity – everyone had forgotten about him. Now they call him out of retirement. I’m sure you have been in situations – we all have – where our faith has been patronisingly dismissed as escapism. But when Darius the Mede is at the door, when there is trouble on the doorstep who is the escapist? Who is the escapist here in Daniel 5? It’s Belshazzar – it’s the unbeliever isn’t it? And it’s the believer – it’s good old Daniel who has got something to say in this situation! I have seen it happen over and over again. There is a terminal illness or the tragic death of a baby or young child and nobody knows quite what to say – there is a conspiracy of silence. Time to call for the minister or elder, isn’t it? Even though we have not been in the church since that wedding or funeral or baptism – it’s time to call the minister. It is amazing how many people will turn to the church when Darius the Mede is on the doorstep – and often it is too late, just as it</p>	<p>2. 다니엘의 흡족한 증명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이른바 전문가들은 모두 침묵합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그들답지 않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통 할말을 잃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이 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부와 권력의 보장이라는 충분한 실제적인 보상을 주었지만, 그 중 단 한 명도 벽에 쓰여진 글을 읽거나 어떤 뜻인지 왕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p> <p>그리하여, 벨사살 왕은 더욱 번민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그의 귀족들도 더욱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던 유일한 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를 은퇴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모두는, 마치 생색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도피로 몰살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데 사람 다리오가 문전에 있고, 문제가 목전까지 가깝게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도피자일까요? 여기 다니엘서 5 장에서 누가 도피자일까요? 그것은 벨사살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무언가 말할 수 있던 것은 연로하고 선한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불치병 또는 어린 아거나 어린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이에 적당히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침묵하고자 하는 모의가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을 요청해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 또는 세례식 때문에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야 할 때일 것입니다.</p>

<p>was for Belshazzar. Look how quickly Belshazzar’s contempt for the God of the Jews evaporates here. One moment he is blaspheming and defiling the articles of God’s Temple – and the next minute he is calling for God’s prophet and showering honours upon him. How often we see that happening when people face trouble in their lives, great hardship or a life-threatening situation. But often it is too late!</p>	<p>메테 사람 다리오가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는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 그러했듯이, 이는 종종 너무 늦습니다. 얼마나 재빨리 벨사살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사라졌는지 보십시오. 한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들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에, 대단한 곤경에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까. 그러나 종종 때는 이미 늦습니다!</p>
<p>There is an emergency in Babylon: Cyrus, the Persian, is on the doorstep. “Call for Daniel!” is the cry. And notice how his reputation goes before him in the words spoken by the queen mother in vv. 11-12. He has got a reputation for holiness, he has got a reputation for integrity, he has got a reputation for wisdom, not just for knowledge but for practical wisdom. And when he arrives on the scene in v. 13 we are not disappointed, are we? He lives up to our expectations – he is all that he is reputed to be. What a challenge that is to us! Am I, are you, are we, what we are reputed to be, what we are supposed to be? Peter says to us in his first letter, “<u>be ready!</u>” – “set apart Christ as Lord in your hearts”. And “always be ready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1 Peter 3: 15). Here in chapter 5 is old Daniel, put on the shelf and forgotten about by an increasingly pagan society, but he is still ready when called upon to speak – and to speak into the situation. He is God’s spokesman and he is the only one who can speak relevantly into this situation and this society. How that should challenge us! How that should encourage us not to be afraid to tell the truth to people like Belshazzar who don’t want to hear it – encourage us not to be afraid to speak out to a society which has written us off. For we, as servants of the true and living God,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re the only people who have got anything to say that is really worth hearing.</p>	<p>바벨론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가 가까이 와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라!”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11~12 절에서 왕대비가 언급하는 말들을 통해, 그의 이전에 다니엘의 명성이 어떠한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신성함, 진실함, 지혜로움의 명성이 높았으며, 이는 단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3 절에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실망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명성대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그 명성 그대로이며, 그 기대에 부응합니까? 베드로는 그의 첫 편지에서 우리에게 “<u>준비하십시오</u>”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 장에 점점 이교도적이 되고 있는 사회에 의해 책장에 넣어두고 잊혀져 버렸던 연로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하기 위한 부르심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며, 이러한 상황과 사회에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얼마나 멋진 도전입니까? 벨사살과 같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참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로 들을 가치가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p>
<p>3. <u>The Writing on the Wall</u> There it is in vv. 25-28 – “Mene, Mene, Tekel, Parsin” – those were the words written on the wall in the royal palace by the human hand that suddenly appeared. If you were wandering through the market place of Babylon and you wanted vegetables or other produce, these are the weights that the vendors would use – mene, tekem and peres (the singular of parsin). What Daniel is doing here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is weaving a prophecy</p>	<p>3. <u>벽에 쓰여진 글자</u> 25~28 절의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은 갑자기 나타났던 사람의 손에 의해 왕궁 벽에 쓰여졌던 글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벨론의 시장을 거닐며 야채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메네, 테겔 그리고 베레스 (단수로 우바르신)는 행상인들이 사용했을 저울들입니다.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 다니엘이 여기서 하고 있던 것은 이러한 단어들의 원래 뜻에서 예언의 의미를 엮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네”는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p>

<p>arou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se words. “Mene”, for example, comes from a word meaning “to be numbered”. “Your days are numbered Belshazzar”, says Daniel. “You have run out of time. The party is over and your end is near.” “Tekel” means “weighed”. “God had weighed your life, Belshazzar, and it is light on righteousness.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balance and found wanting.” “Peres” has a double meaning. It comes from a word that means “divided”. “Your kingdom is going to be divided.” But it also sounds like the word for “Persian”. “God has not only determined to divide your kingdom”, says Daniel, “but he has already appointed the executioner – Cyrus the Persian – and he is on your doorstep”.</p>	<p>“벨사살이여, 당신의 날들은 세어졌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다되었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당신의 마지막은 멀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테켈”은 “저울에 단다”란 뜻입니다. “벨사살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계량하셨고, 의로움이 부족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입니다.” “베레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나눈다”란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바사”라는 단어와 발음이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나라를 나누기로 결정하심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집행인을 바사 사람 고레스로 지정하셨고, 그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p>
<p>With those 3 little words – “mene, tekel, peres” – Daniel rings out the death knell of Babylon. “The writing is on the wall for you Belshazzar, the writing is on the wall for you, Babylon. You are finished.” “Mene” tells you when, “tekel” tell you why and “peres” tells you how. The writing is on the wall!</p>	<p>다니엘은 이 3 가지의 “메네, 테켈, 베레스”의 작은 말들로 바벨론 종말의 경종을 울립니다. “벽에 쓰여진 글들은 당신, 벨사살을 위한 것이며,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메네”는 언제를, “테켈”은 왜, 그리고 “베레스”는 어떻게 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벽에 그 글들이 쓰여진 것입니다.</p>
<p>What does Belshazzar do about it? Look at v. 29. It is so typical, isn’t it? “Then at Belshazzar’s command, Daniel was clothed in purple, a gold chain was placed around his neck, and he was proclaimed the third highest ruler in the kingdom.” What Kingdom??? Belshazzar had not heard a word Daniel had said, had he? Or maybe he had heard, and it frightened him – and he is trying to pretend that it will never happen. But it did happen – “that very night”. Look at v. 30. “That very night Belshazzar, King of the Babylonians, was slain.” Doesn’t it remind you of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in Luke’s Gospel? The rich man who built bigger barns to store all his grain and goods, who said to him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Luke 12: 18-19). But God says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Luke 12: 20). That very night, we are told, Belshazzar for all his wealth, for all his power and influence, was slain and Darius the Mede, Cyrus the Persian, took over his kingdom.</p>	<p>이에 대해 벨사살은 무엇을 했습니까? 29 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어느 왕국 말입니까? 벨사살은 다니엘이 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혹은 아마도 그는 이 말을 들었고, 겁에 질려, 마치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냥 애를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30 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는 누가복음의 부유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 더 큰 곳간을 지었던 부자, 자신 스스로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르던 부자 말입니다. (눅 12:18-19) 그날 밤, 벨사살의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은 죽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 바사 사람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p>
<p>There are 2 proud men in chapters 4 and 5 – back to back: Nebuchadnezzar and Belshazzar. Just like the 2 thieves crucified alongside Jesus – one is saved from his arrogance and self-centredness, saved so that we might not despair; the other is lost in his arrogance, lost so that we dare not presume. In many respects, chapters 4 and 5 of the book of Daniel are an evangelistic tract written to challenge the pride of the sinner who thinks he or she can live without God –</p>	<p>4 장과 5 장에는 두 명의 오만한 인물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못박혔던 두 명의 도둑들처럼, 한 사람은 자신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아, 우리가 절망치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오만함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다니엘서의 4 장과 5 장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수</p>

<p>independent of God and in control of his or her life. I wonder, is that you? If so, listen to the warning here: the writing is on the wall – your period of self-rule will soon come to an end. Turn now to Jesus Christ and be saved from your pride.</p>	<p>있다고 생각하는 죄인의 자만심에 대한 도전을 기록한 복음전도적 소책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벽에 쓰여진 글들, 이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스스로를 통치하는 여러분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당신의 자만심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p>
<p>For those who belong to Jesus, this chapter is an encouragement. The writing is on the wall for this secular society of ours. The writing is on the wall for any society, any regime, any ideology that dares to pit itself against the sovereign God. God’s people, Christians, disciples of Jesus, always need to be encouraged to know that no matter how formidable the tyrant, God always has the last word. The writing is on the wall for every dictator, every despot who thinks that he can trample upon the sensitivities of God’s people. Isn’t that what the church has understood and seen down through the centuries? Isn’t that what we see in the final chapters of the book of Revelation at the end of the Bible? In chapter 18 we read, “After this I saw another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e had great authority and with a mighty voice he shouted: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With such violence the great city of Babylon will be thrown down, never to be found again” (vv. 1-2, 21). Babylon the Great has fallen, destroyed! And when Babylon is just a smouldering ruin on the horizon of history, God’s people are reigning in heaven in the new Jerusalem.</p>	<p>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 장은 격려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은 우리의 이 세속적인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들은 감히 주권자적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사회와, 모든 제도, 모든 이데올로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항상 그 독재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종적인 발언을 가지고 있음을 알도록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감응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독재자, 폭군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해하고 있고 세기에 걸쳐 보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18 장을 읽으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계 18:1-2,21). 위대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서서히 썩어가며 역사 속으로 몰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p>
<p>May we take strength and courage from this story in Daniel 5 – that indeed God will have the last word. His purposes are sure and cannot fail. He will not be thwarted. So don’t be afraid to speak out and live out your Christian faith in the office, in the meeting, in the lecture room or the classroom, in the waiting room, at youth group, at family gatherings or whatever it may be. Don’t be afraid to share with people the glorious truth of God, the life-giving Gospel, because God will own it and use it to his glory.</p>	<p>다니엘서 5 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발언을 가지고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확실하며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말하고 회사에서, 회의에서, 강의 또는 학급에서, 대기실에서, 청년부에서, 가족간의 모임들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믿음에 따라 실행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된 진실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소유하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p>

Amen